

35만명 찾은 명랑대첩축제

주민참여형 대표축제 됐다

관옥선·420m 쇠줄걸기 등 관광상품화 기대

올해로 3년째인 '2010 명랑대첩축제'가 10월 35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역사의 철저한 고증과 실감나는 재현을 통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특색있는 지역 문화를 알리면서 전남 대표축제로서 기본틀을 확고히 다졌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한 실감나는 재현=이번 축제에서는 세계 해전사에 길이 빛날 대승전인 '명랑해전'을 실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실감나게 재현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로서 손색이 없었다.

특히 주민 1500명이 참여하고 관옥선을 비롯, 행사에 동원된 어선만 107척에 이르는 등 스케일이 커진다. 스탠트맨과 효과음을 활용하면서 전투 과정을 무선 마이크와 영상을 통해 생중계하는 등 해상 전투 장면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관옥선 건조 등 역사에 충실한 고증도 주목받았다. 관옥선은 413년 전인 1597년 음력 9월16일, 이순신 장군이 빠른 물살을 이용해 일본 수군 133척을 궤멸한 주력선으로, 나무판자로 갑판 위에 집을 꾸민 대장선은 160명까지 승선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목포에 있는 국내 유일의 전통 한선업체에 의뢰해 관옥선을 제작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주민·관광객이 함께 만든 대표축제=이번 축제는 또한 해남·진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요 행사를 치르으로써 대규모 주민 참여형 축제의 기틀을 다졌다.

사흘간의 축제의 주요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만 7000명에 이른다. 명랑해전 재현에 1500명, 울돌묵에 20m 짜리 쇠줄 21개(420m)를 걸어 적선을 침몰시킨 쇠줄 걸기 행사를 재현하는데 400명, '약무호남임성식' 행사에 400명, 백의종군 뒤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 장군의 시가행진

을 연출하는 수군재건택리 행사 등에 400명이 참여했고 명랑해전으로 죽은 한·중·일 원혼을 만나 8대에 안치해 행진한 '평화만가행렬'에는 700여 명이 참여를 신청했다.

800여 곳의 해남과 진도 마을 깃발을 진도대교에 꽂는가 하면, 지역의 설화와 야사 등을 소재로 한 '명랑21품 마당놀이'에는 해남·진도 21개 읍·면 주민들이 참여해 색다른 즐거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35만 관광객,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명랑대첩축제는 이번 행사에서 지역 문화와 접목을 시도하는 등 내실을 다지면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크게 늘어났다. 전남도는 해마다 축제를 찾고 있는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을 비롯, 주한미군과 가족 700여명이 한꺼번에 축제현장을 찾은 등 모두 35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병훈련소 체험행사를 비롯, 진도 대교에서 운영된 '회오리 파크' 체험



프로그램, 뱃배타기, 무선 인력선 체험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대폭 늘어난 게 관광객 유치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 양복안 관광문화회장은 "올해 축제의 특징은 관옥선과 쇠줄걸기 등 역사적 사실성을 중요하게 다뤘다는 점"이라며 "명랑해전을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상품화해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413년전인 1597년 음력 9월16일, 133척의 왜군 함선이 13척의 조선 관옥선에 쫓겨 퇴각하는 모습이 10일 진도군 울돌묵 일대에서 재현되고 있다. 전남도의 대표축제인 명랑대첩축제는 35만명의 관광객을 모으며 3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아래는 역사 고증을 통해 제작된 관옥선.

전남도가 대표축제인 명랑대첩축제는 35만명의 관광객을 모으며 3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아래는 역사 고증을 통해 제작된 관옥선.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0만명 운집 추억의 7080 충장축제

흥행 성공 도심활성화 기여

교통혼잡·주차난·무질서는 해결 과제

'추억&만남'을 주제로 열렸던 열린 '제7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10일 밤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충장로와 금남로, 예술의 거리 등 광주 도심에서 열세동안 진행된 향연은 지역민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충장 축제는 매년 참가자가 수십만 명을 넘어지고, 타 지역 참가자들이 늘면서 '추억'이라는 콘텐츠 하나로 국내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관람객 운집=올해 충장축제는 과거보다 많은 관람객이 축제 현장을 찾아 흥행면에서는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10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열세 동안의 축제기간 동안 관람객은 50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말과 휴일을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이 큰 폭으로 늘면서 충장로와 금남로에는 인파에 등이 떠밀려 종종걸음을 했던 80, 90년대 주말 풍경이 연출됐다. 이는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축제에 국내 600개팀, 국외 15개국 17개팀 등 2만여명이 참가해 지난 해와 차별화된 거리퍼레이드, 지역문화와 정체성을 담아낸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충장축제는 금남로, 충장로 등 도심거리 전체를 무대로 삼아 전

국 유수의 문화재 공연을 비롯해 시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포크송과 뮤지컬 공연', '아시아 문화예술공연', '거리퍼포먼스', '추억의 명소창기' 등 생동감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거리 축제의 전범을 보여줬다.

특히 축제 프로그램 중 '추억의 동창회'와 '추억의 전시관' 등에서는 '추억'이라는 주제 아래 고교 동창이나 동문·은사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행사가 펼쳐져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설무대에서 7080 가수들이 전하는 '추억의 음악'은 퇴근길 중·장년층 관람객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이번 축제는 우리들의 기쁜 젊은 날의 감회가 서린 충장로와 금남로에서 추억을 공유하는 시민들이 하나가 됨을 느낀 감동의 시간이었다"면서 "오는 2014년 세계 10대 거리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도심활성화 기여=축제추진위는 축제 기간 충장로를 중심으로 한 '스트리트 세일'을 통해 매출이 작년 대비 30% 가량 증가하는 등 옛 도심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주)하나투어 여행사와 연계해 충장 축제~광주비엔날레~담양 죽녹원 등 인근 관

광지를 함께 방문하는 충장 열차 여행상품도 큰 인기를 끌며 수도권 여행객 1000여명이 다녀갔다.

또 광주YMCA와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우체국 등 관내 기관들이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관 주도도 벗어나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축제의 면모를 보였다.


무엇보다 7억4500만원의 저예산으로 쇠타를 거둬내는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효자 축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통혼잡·주차난 가중=축제의 주무대가 협소해진 데 따른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와 금남지하상가 일부 구간 붕괴로 인해 행사의 주무대가 기존 옛 전남도청앞 분수대 대신 광주YMCA 앞에 설치되면서 금남로 일대의 교통이 훨씬 복잡해지고, 통행도 불편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가중됐고, 2만여명의 인파가 몰린 지난 5일 개막 공연시 혼잡으로 인해 관람객 일부가 부상을 입었다.


축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혼잡은 불가피한 만큼 이로 인한 피해가 상인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인들의 참여와 의견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지적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에서도 드라이빙의 즐거움이 시작된다



**닛산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십시오
한국닛산 공식딜러 모집 안내**

기간: 2010년 10월 31일까지 | 지역: 광주/ 대구/ 대전
문의처: 02-2085-8900 / dealer@nissan-korea.com
신청자격: 소비자 대상 자동차 판매업과 정비업에 대한 지식과 운영 가능한 자질 및 자산을 보유하신 분

SHIFT the way you move 

광안 JJ 모터스 02-519-9999 | 서호 한미 오토모티브 02-523-6400 | 분당 SK 네트웍스 080-776-7900 | 인천 한미 오토모티브 032-463-6400 | 일산 한미 오토모티브 031-902-5600 | 부산 퍼시픽 모터스 051-780-2300



충장축제 마지막 날인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우체국무대에서 김창덕 선생이 바라춤 공연을 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6일간 진행된 충장축제는 이날 밤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